화살

1960년 12월호 (137)

3- DEC 1 5
Copy ___ 1961

길은 하나이다

안 창수 그림

송 시엽 그림

5 개년 계획의 승리를 우리는 총화한다.

새 생활 새 력사 창조의 영광스러운 기수인 조선의 영웅적 로동 계급이…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일떠선 우리의 농민들이…

붉은 인테리들이…

터져 오르는 화산파도 같다.

온 조선 방방곡곡에 기쁨이, 환성이 터져 오른다. 도도한 긍지가 물'결치고 있다.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근 4 년, 기껏 자랑해도 좋다. 소리 높이 웨쳐도 무방하다. 우리는 불과 4년만에 5 개년 계획을 모든 부문 모든 지표에 걸쳐 해 제끼지 않았는가!

첫 결승점은 돌파되였다. 목표는 이루웠다.

후손 만대의 행복,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발 딛고 올라 설 반석 같은 터전은 닦아졌다.

조국 통일의 위업 성취를 위한 파멸된 남조선 경제, 살'길 잃은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도 꾸려 놓았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 가며 오늘을 향하여 줄달음치던 나날에 다문 하나의 양수기를 조립하면서도 남녘땅 형제들에게도 이것이 가 닿을 그 시각을 생각하며 일'손을 다그치던 우리, 우리는 이렇게 하여 오늘 최고 인민 회의 높은 연단을 통하여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되였다.

… 왕금이 튼 파주, 안동, 호남 지구에 생명수 흘러 넘치게 하자, 황무지 100만 정보에 오곡이 무르익게 하자.

—입자 잃은 조각배 붙안고 통곡하는 포구—려수, 통영, 인천, 울릉도에 700 척의 기관선을 보내 줄테다. 흑색 야금 종합 공장도 세워 주고 수력 발전소도 건설해 줄테다.

—우리는 또한 찬 겨울 긴긴 밤 네거리에서 떨고 있는 50만 고아들도 이 넓은 가슴에 품어 주마—고

우리에게는 밑천이 있다.

무궁무진한 힘.

번득이는 예지.

위대한 민족적 기상이 조선 땅 우에 나래친다.

이 나라 력사에 천리마 시대를 열어 놓은 창조와 기적 변혁과 비약으로 충만된 5 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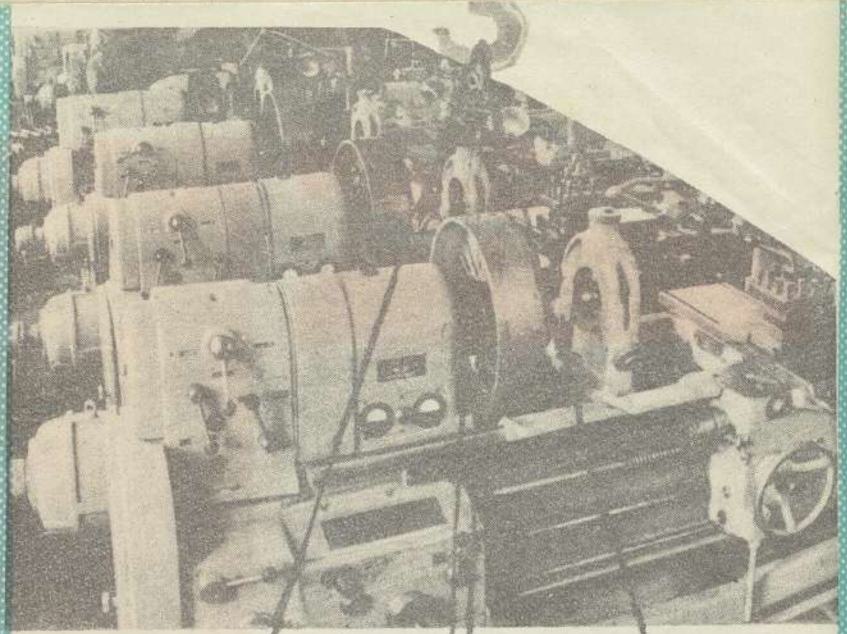
그것은 동방 일각 조선 땅 우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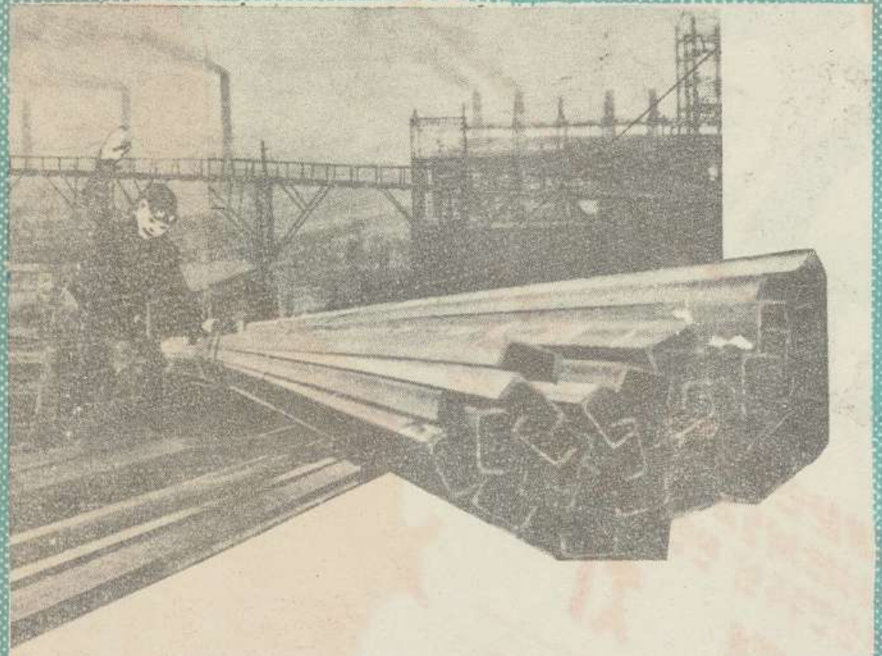
조선 로동당의 총 로선의 찬란한 승리이다.

(로동 신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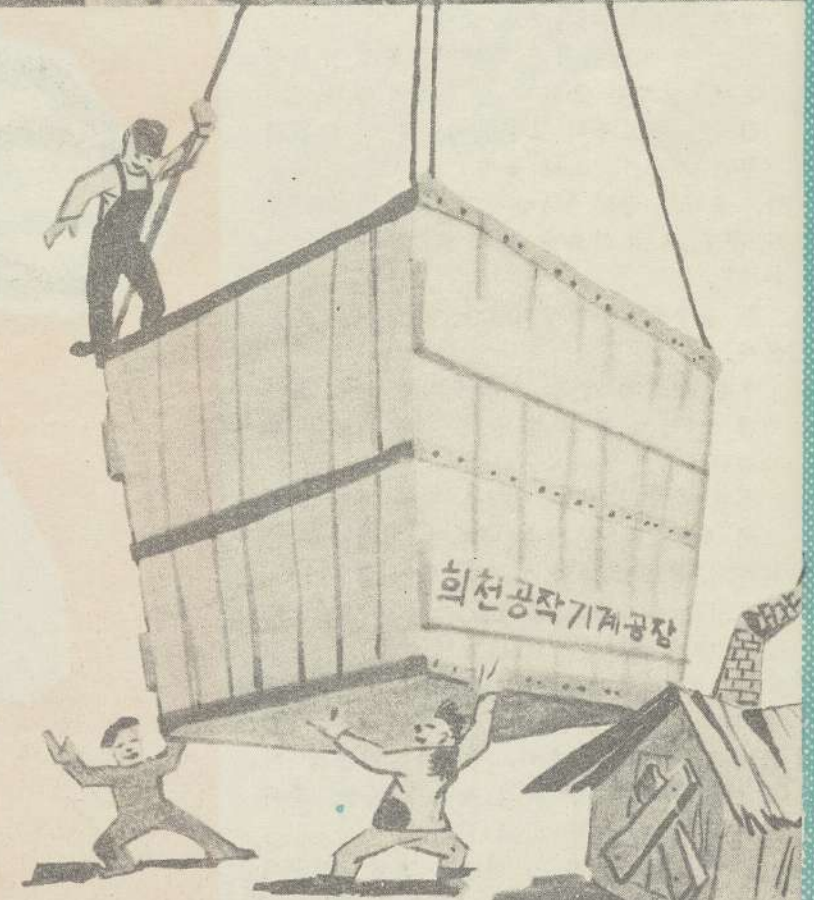
송시엽 그림

구원의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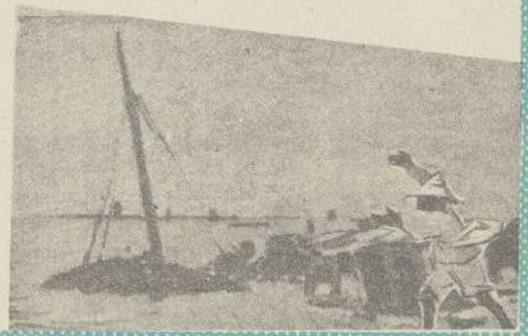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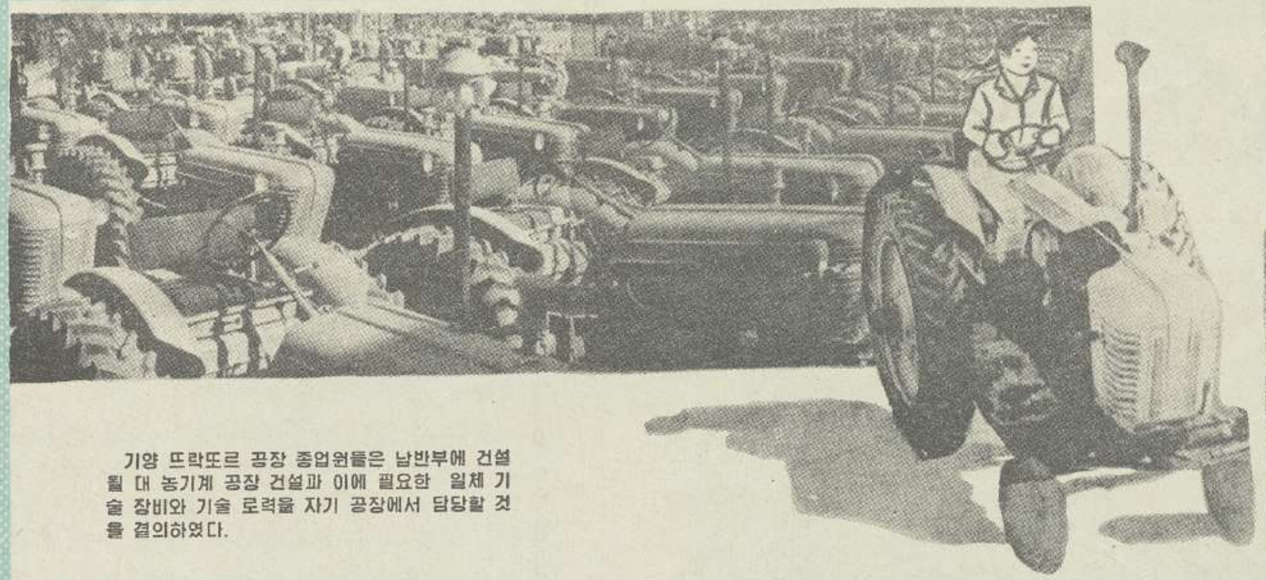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은 남조선에 흑색 야금 종합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희천 공작 기계 공장 종업원들은 남조선에 년산 1000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작 기계 공장과 각각 5000 톤 능력의 농기계 및 광산 기계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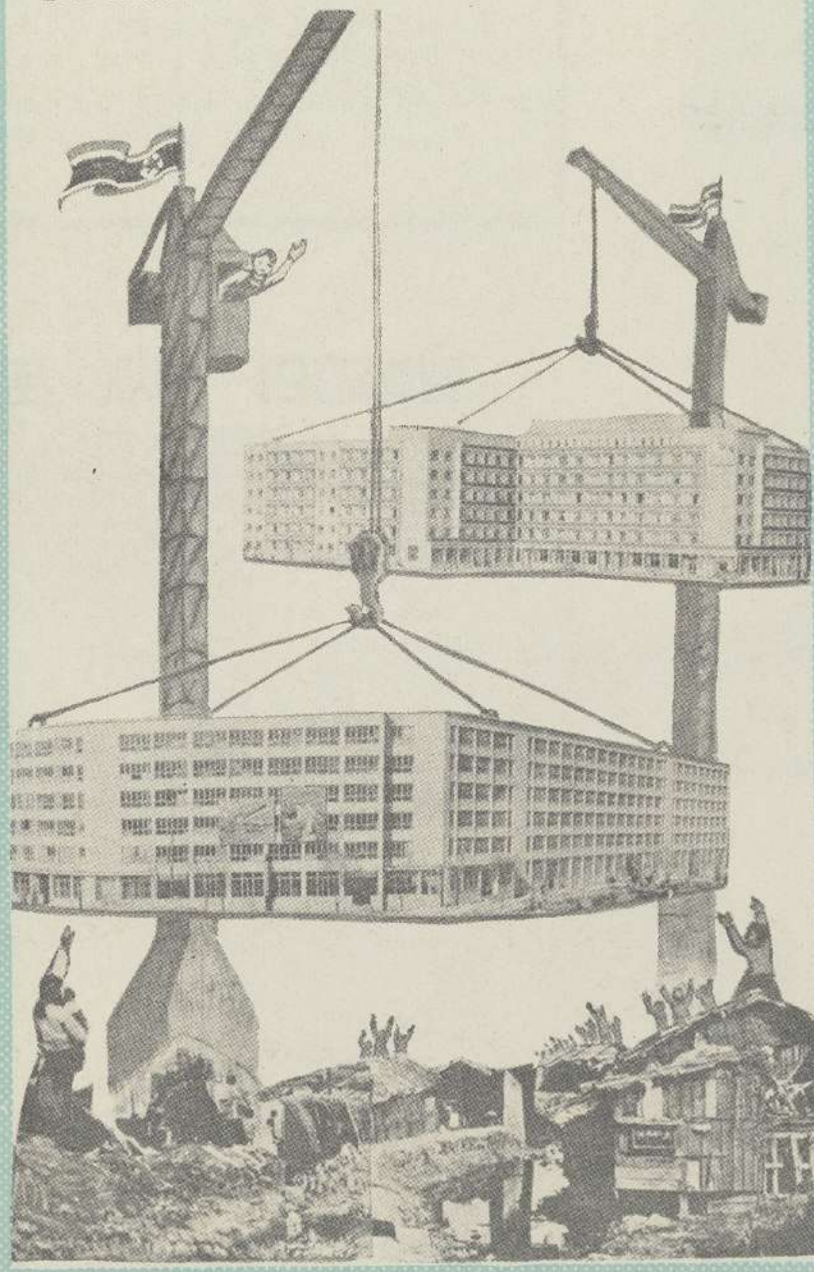
북중 기계 공장 종업원들은 령락된 남조선 수산업의 복구를 위하여 700 척의 기관선에 설치할 열구 기관과 랭동기들을 생산하여 보낼 것을 결의하였다.





기양 뜨락또르 공장 종업원들은 남반부에 건설될 대 농기계 공장 건설과 이에 필요한 일체 기술 장비와 기술 로력을 자기 공장에서 담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평양 서구역 건설 트레스트 종업원들은 서울에 지어 줄 다층 주택들을 자기들이 담당하여 건설할것을 결의하였다.



평양 방직 공장 종업원들은 남반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1960년도계획을 초과 수행하여 2천백만메터의 가공 직물을 더 생산 할것을 결의하였다.

조 명식 그림

구급 처치

백 인균 그림

정 팡영

《그래 백성놈들이 뭐라고들 하던가?》

괴뢰 《내무부 장관》은 여론 조사를 내 보냈던 치안국장에게 물었다.

《예, 모두가 1960년을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난 폭풍의 해라고들 합니다. 3월 15일 마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 서울 대학생들의 봉기,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인천 등에 퍼져 나가 드디어 그 령대 대통령을 꺼꾸러 뜨리고 말았다구 아주 기세가 높아서…》

《더 참을 수 없었다는 건 무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던가?》

《그것은 대한 민국 전 지역에서 들구 일어난 건 물론 지어 우리가 가장 믿던 경찰놈들까지 경관복을 벗어 던지고 변절해 넘어간 사실과 열아문 살 나는 학생들까지 리 승만 물러 가라고 일어난 것 특히는 스무살도 못된 소년이 대포 아가리를 막아 섰는가 하면 운신을 못하던 늙은 할머니까지 땅크에 바라 올라갔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다고들 합니다.》

《그리구…?》

《그리구 1960년의 대한 민국 력사— 그것은 부서지고 불탄 력사라고들 합니다.》

《뭐라구》

《경무대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청, 도청, 군청, 지어 마산의 경찰 지서에 이르기까지 유리창은 몽땅 부서졌고 순경의 대갈통이 부서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리 승만 대통령의 동상 모가지가 부서진 사실을 들면서…》

《불탄 력사라구 하는 건?》

《부산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모든 경찰

그만 하루 아침 새에 나빼드러지고 대한 민국이 박살됐으니 박살 단계요, 둘째 단계는 현 5 대 민의원이 4월 봉기 때의 부상자들이 습격하고 짓밟는 바람에 조상을 쳤으니 조상 단계랍니다》

《뭐 조상이라구?》

《예, 국회 의원님들이 어찌나 질겁을 했는지 전원이 의사당 밖에 나와 엉뎅이를 고추 들고 손발을 싹싹 비비면서 다시 한 번 속아 달라고 시위자들 앞에서 비는 꼴이 마치 시크

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래 이번 북한에서 내놓은 통일 방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던가?》

《예 그야말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모두가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지지한단 말이지?》

《아닙니다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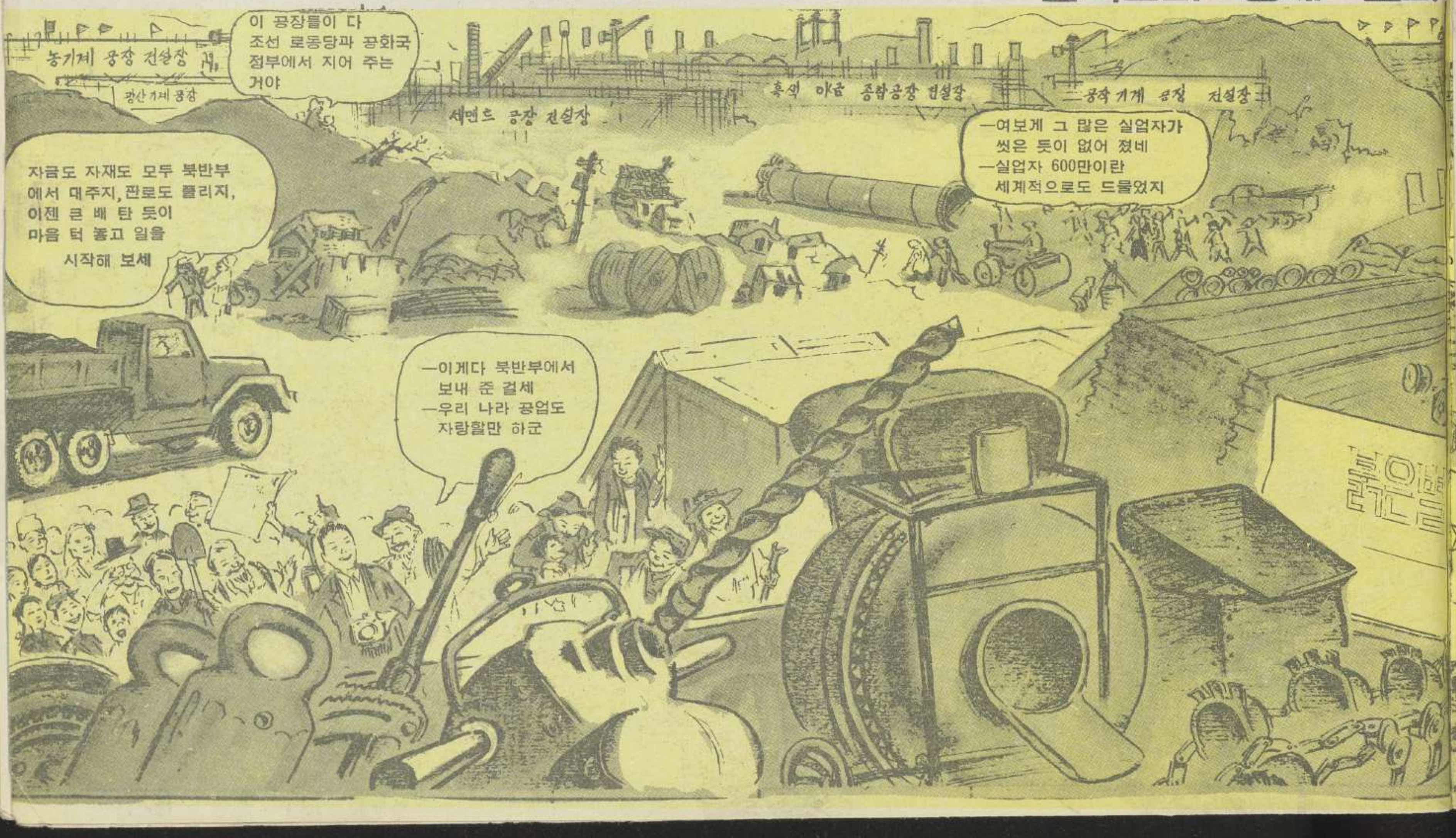
《그럼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던가?》

의에

자유

조만

남북간의 경제 문화



인균 그림

구급 처치

여론 조사

정 팡영

《그래 백성놈들이 뭐라고들 하던가?》

괴뢰 《내무부 장관》은 여론 조사를 내 보냈던 치안국장에게 물었다.

《예, 모두가 1960년을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난 폭풍의 해라고들 합니다. 3월 15일 마

《그리구…?》

《그리구 1960년의 대한 민국 력사— 그것은 부서지고 불탄 력사라고들 합니다.》

《뭐라구》

《경무대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청, 도청, 군청, 지어 마산의 경찰 지서에 이르기까지 유리창은 몽땅 부서졌고 순경의 대갈통이 부서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리 승만 대통령의 동상 모가지가 부서진 사실을 들면서…》

《불탄 력사라구 하는 건?》

《부산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모든 경찰

그만 하루 아침 새에 나빠드러지고 대한 민국이 박살됐으니 박살 단계요, 둘째 단계는 현 5 대 민의원이 4월 봉기 때의 부상자들이 습격하고 짓밟는 바람에 조상을 쳤으니 조상 단계랍니다》

《뭐 조상이라구?》

《예, 국회 의원님들이 어찌나 질겁을 했는지 전원이 의사당 밖에 나와 엉뎅이를 고추들고 손발을 싹싹 비비면서 다시 한 번 속아 달라고 시위자들 앞에서 비는 꼴이 마치 시조 할애비 조상 치듯 하드라구 항간에서 쑥

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래 이번 북한에서 내놓은 통일 방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던가?》

《예 그야말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모두가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지지한단 말이지?》

《아닙니다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던가?》

정종여 그림

1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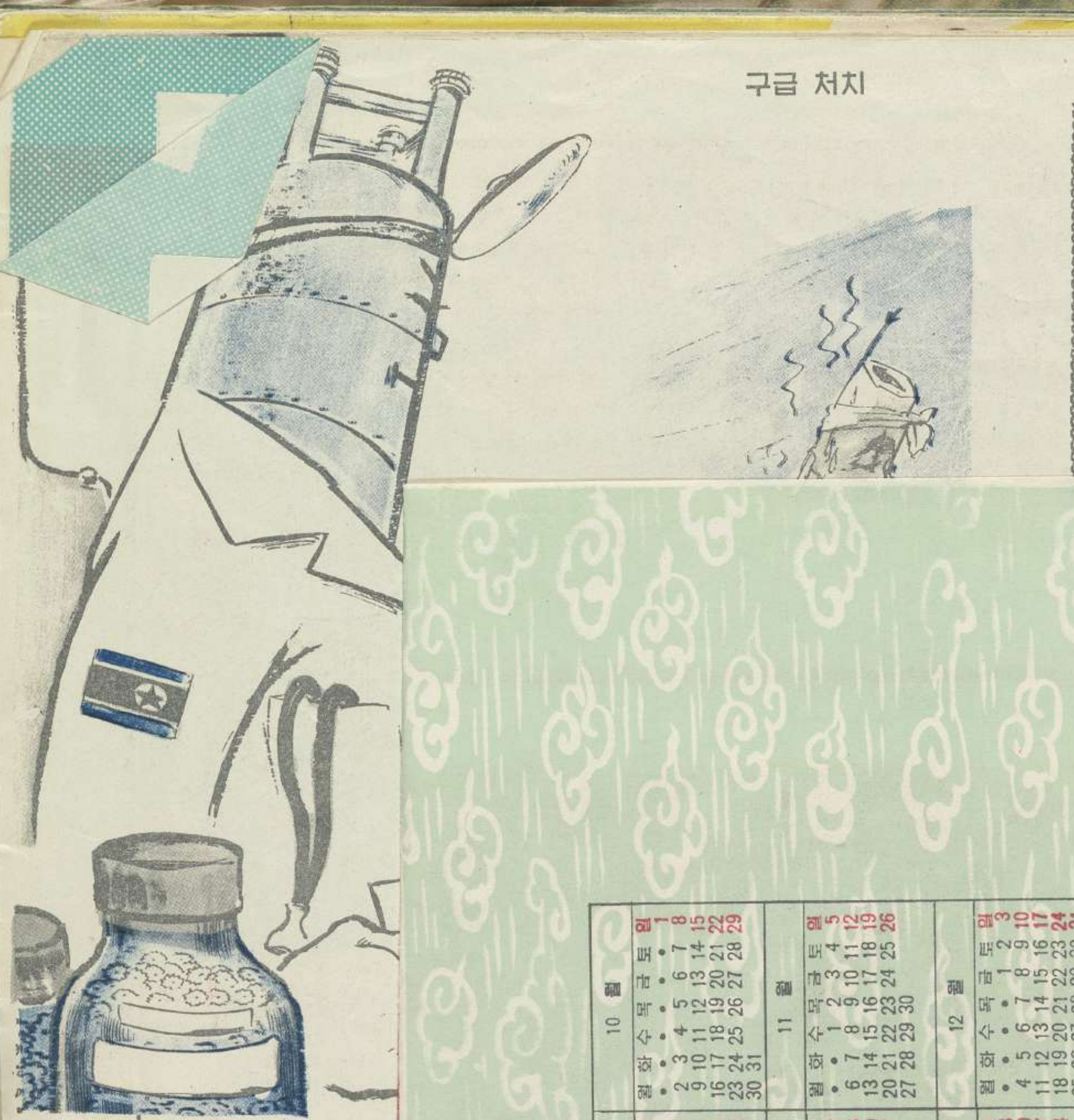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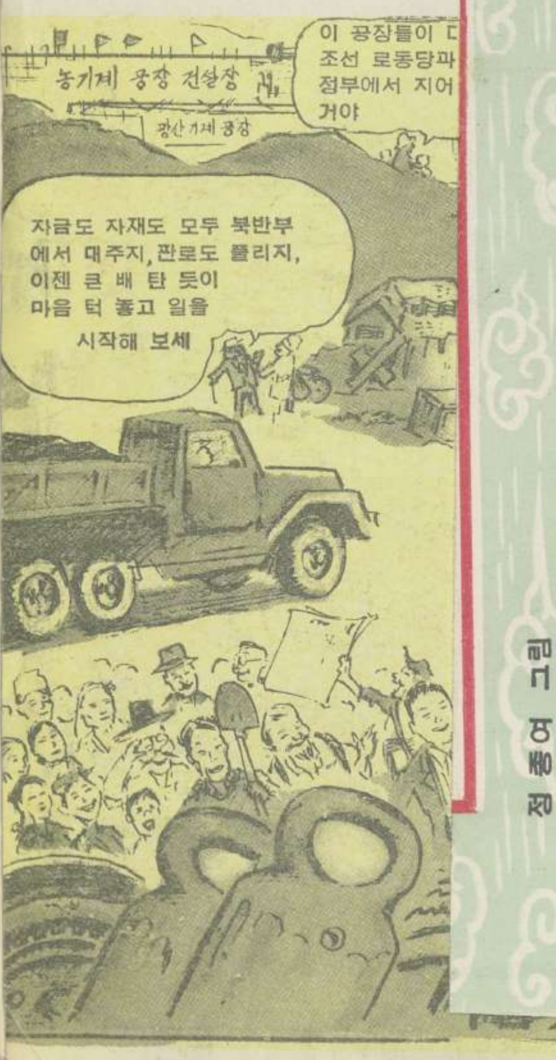
12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화살" 1960, 12호 부록)

구급 처치





정종여 그림

1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화 살" 1960. 12호 부록)

여론 조사

정 팡영

《그래 백성놈들이 뭐라고들 하던가?》

괴뢰 《내무부 장관》은 여론 조사를 내 보냈던 치안국장에게 물었다.

…60년을 참다 못해 들고 일…

…는 말할 것 없고 신문사, 반공 회관, 중… 심지어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 협조처 …차까지 불탔으니 그걸 가지고 백성들 …》

…그리구…》

…금년도 대한 민국 력사를 대체로 3 단계 …구분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대한 민국의 력대 대통령의 감… 박살이 난 단계고. 둘째로는 장 면 정… 5 대 민의원이 조상친 단계고, 세째로는 …국 사람들의 꽁지에 불이 달린 단계라고 …ㅂ니다》

…좋다, 그 매 단계를 실례를 들어 차근차… 히 말할 수 있는가?》

…예, 첫 단계는 리 승만 대통령께서 목대 … 부러지고 리 기붕이 급살을 한건데 글쎄 …온 세계에서 일약 명성을 떨치시던 분들 … 10만 백성이 모여 와와— 소리를 지르니

《그리구…?》

《그리구 1960년의 대한 민국 력사— 그것은 부서지고 불탄 력사라고들 합니다.》

《뭐라구》

《경무대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청, 도청, 군청, 지어 마산의 경찰 지서에 이르기까지 유리창은 몽땅 부서졌고 순경의 대갈통이 부서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리 승만 대통령의 동상 모가지가 부서진 사실을 들면서…》

《불탄 력사라구 하는 건?》

《부산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모든 경찰…

그만 하루 아침 새에 나빠드러지고 대한 민국이 박살됐으니 박살 단계요, 둘째 단계는 현 5 대 민의원이 4월 봉기 때의 부상자들이 습격하고 짓밟는 바람에 조상을 쳤으니 조상 단계랍니다》

《뭐 조상이라구?》

《예, 국회 의원님들이 어찌나 질겁을 했는지 전원이 의사당 밖에 나와 엉뎅이를 고추 들고 손발을 싹싹 비비면서 다시 한 번 속아 달라고 시위자들 앞에서 비는 꼴이 마치 시조 할애비 조상 치듯 하드라구 항간에서 쑥떡거리고 있습니다》

《이놈 아가리질을 조심 못할가》

《장관님 전 다만 실감을 주기 위해 백성들이 말하는 그대로 전합니다》

《…》

《그리고 세째로는 미국 사람들의 꽁지에 불이 달린 단계란 것은 미국 상품 배격 운동, 미국식 생활 양식 반대, 때때로 미군 철거 요구, 저 그리고 맥코노이 물러가라. 언더우드, 싸우어 물러가라…》

《이 놈아 목소리를 낮추지 못할가, 이층에 미국 량반이 있단 말이다》

《그럼 그만 두겠습니다》

《이놈아 조용히 말하란 말이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부서지고 오그라든 언더우드, 싸우어의 집을 보고 막 기뻐하며 미군이 쫓겨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뭐 조국 통일의 날이 다가 온다고… 장관님 전 어데까지나 항간에서 떠도는 소리를 사실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래 이번 북한에서 내놓은 통일 방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던가?》

《예 그야말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모두가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지지한단 말이지?》

《아닙니다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던가?》

《황송하오나 하나도 없습니다. 각하》

《하나두 없다구?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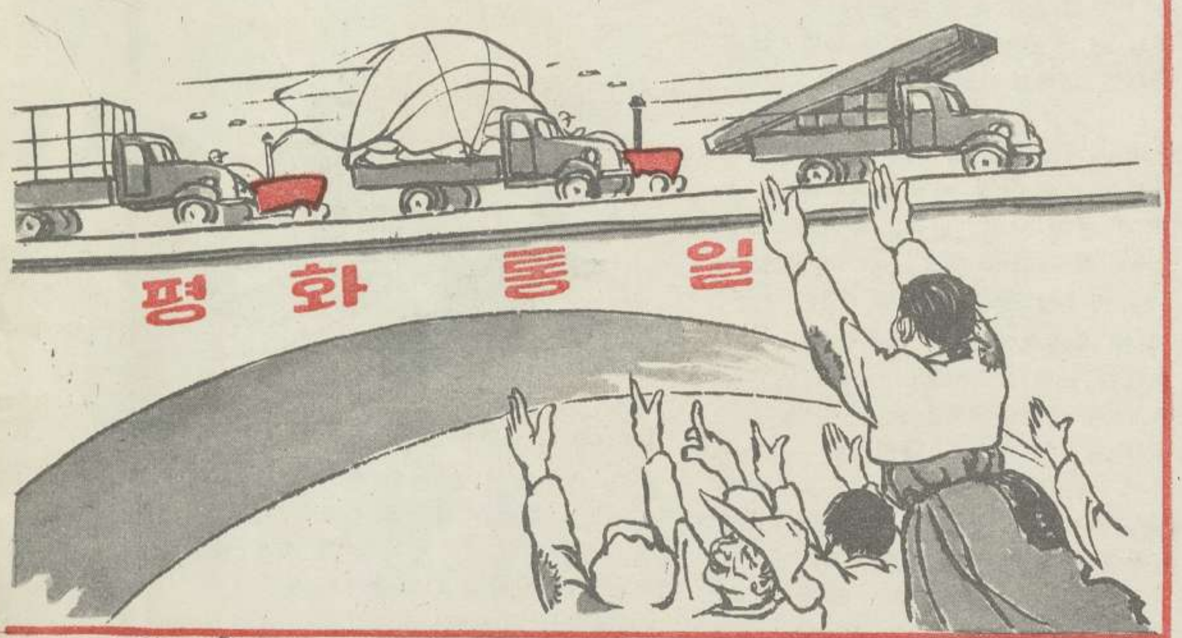
《예, 모두가 이번 북한 최고 인민 회의에서 다시금 내놓은 외국의 간섭이 없는 자유 선거, 련방제 실시, 경제 문화 교류 협조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뭐라구!! 아이구—》

…와 협조가 실현된다면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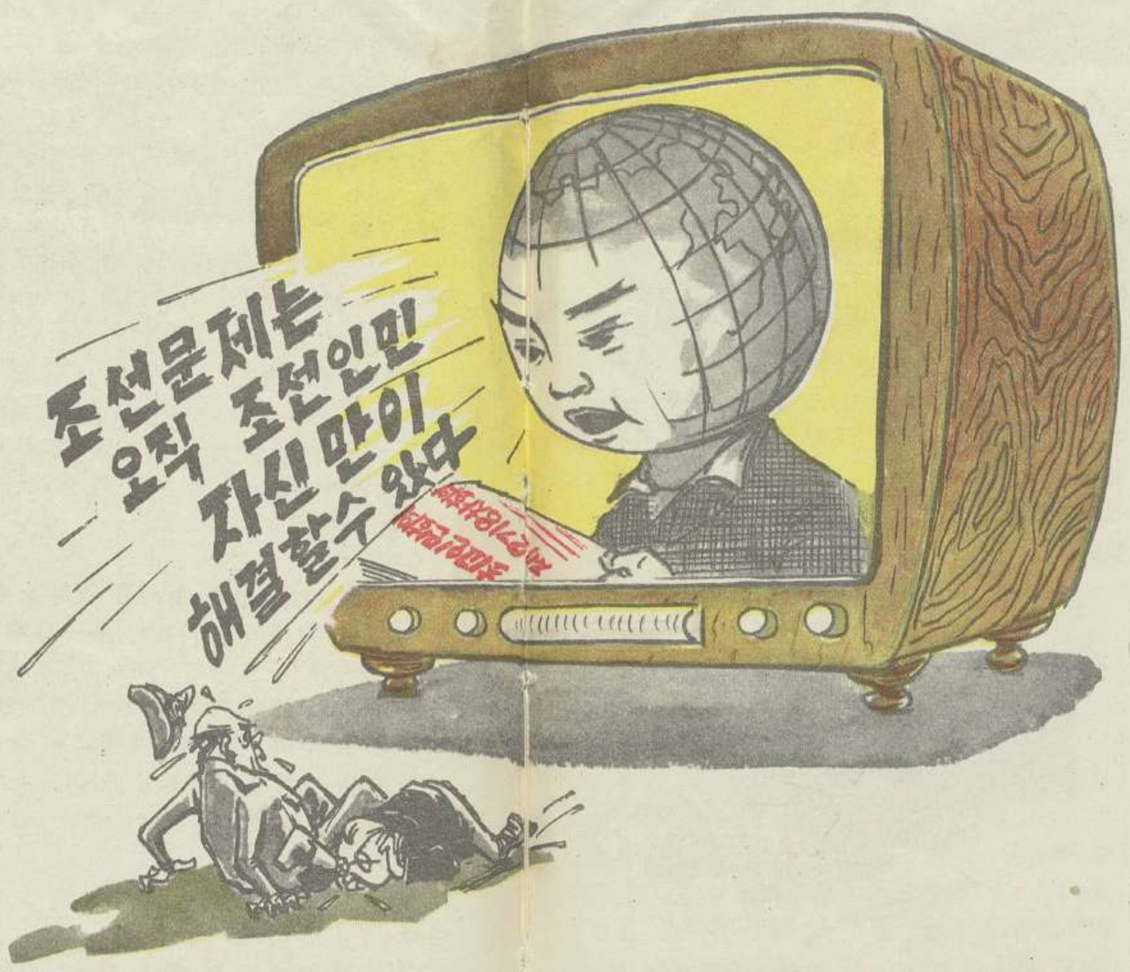
념원의 다리는



송 용남 그림

현실의 다리로 되여야 한다

세계 인민의 목소리



송 시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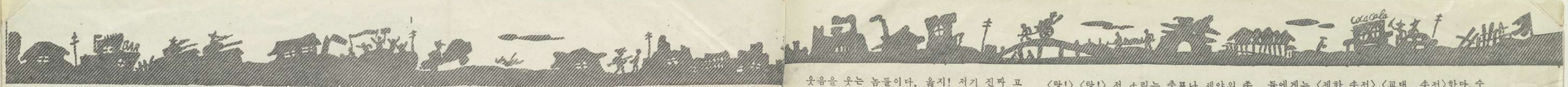
암흑의 남녘 땅에

새 날이 밝으면

송 용남 그림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가 실현된다면

박 송히 그림



서울의 세말풍경

김 철희

여기는 서울의 종로가와 을지가이다.
울긋불긋 귀신 딱지 같은 영어 간판, 라체화, 술취한 미군이 욱실거린다고 해서 미국의 어느 도시 빈민 거리에 왔다고는 착각하지 마시라, 살을 꼬집어 보지 않아도 여기는 분명 서울임에 틀림 없다. 메뚜기 다리 같은 양복 바지에 검은 색안경—그것은 승냥이를 닮아가는 장 면 도당의 강아지—깡패들이다.

《년말 대 써비스 주간》《경품부 대 매출》의 기'발이 펄럭이는 상점들! 《크리쓰마쓰. 츄리》를 장식한 상점들—그러나 당신은 《년말 호 경기》를 생각하시지는 마시라! 어느 상점에고 들어가 보시라, 거기서 〈한국

국산품〉을 찾아내 보라 어디에도 〈메이드 인 유. 에쓰. 에이〉—가격표를 보고 왜 기절하는가.

지난 4월 보다 30% 이상 오른 물가는 또 천정 모르고 올라가고 딸라 환산 비률은 1,500 대 1—〈대한 민국〉 돈은 휴지보다 못하다는 것을 처음 듣는가? 고객이 없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저기서 맥 없이 걸어 오는 낡은 〈국군〉복 입은 피'기 없는 젊은 지게'군이 온다. 그러나 그는 고객이 아니다. 그는 며칠째 끼니를 먹지 못한 〈상이 군인〉이다. 이 생지옥에는 버림 받은 〈상이 군인〉이 11만 명을 넘는다.

저기 직업 소개소 앞에 앉아 버티는 실업자들의 자포 자기한 얼굴에도 〈고객〉이라 써여 있지 않다. 저 골목에서 깡통을 대롱거리며 쓰레기 통을 순례하는 거지 아이들도 물론 고객이 아님은 틀림 없다고— 남조선에는 버림 받은 전쟁 고아 50 여만 명이 쓰레기 통 옆에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저기 창백한 얼굴의 청년도 고객은 못된다. 그는 방금 혈액 은행에서 피를 팔고 현기증을 일으키며 나오는 사람이다. 피를 파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서 피 값은 35%나 떨어졌다.

저기 짚차에서 내리는 미군의 한 패는 더군다나 고객이 아니다. 그 놈들은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빼앗아 가는 깽들이다. 조선 사람을 이 밤에도 짚차로 깔아 죽이고 너털웃음을 웃는 놈들이다. 옳지! 저기 진짜 고객이 나타났다. 대 번영이로구나, 숫한 값

비싼 물건을 사 가지고 승용차에 비스듬이 앉은 개기름 번들거리는 배뚱뚱이는 어데로 가는가 보라. 미국인 고관들과 장 면 일당의 뒤'문 벨을 누르지 않는가. 분명 그는 미국인의 사타구니에 끼여드는 강아지들이며 아직도 남조선 인민의 피를 빨아 먹는 리 승만 잔당들이다.

저기 〈빠—〉며 캬바레, 카페들에서 들려 오는 아츠러운 야만의 웨침은 다름 아닌 쨔즈와 장송곡이다. 오도깨비 같은 짙은 화장에 반라체의 녀인들—그들은 주린 창자를 위해 륜락의 길에 들어선 불상한 녀인들이다. 남조선엔 50만 명의 전쟁 미망인들이 늙은이, 아이들 91만 6천 명을 거느리고 살아 갈 길 없어 헤매고 있다.

〈탕!〉〈탕!〉 저 소리는 축포나 제야의 종소리가 아니다. 술 취한 미군놈들이 함부로 조선 사람들에게 총질하는 소리이다.

불쾌하시다면 다른 데로 가 보자! 저기 자그마한 군수 공장 정문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거지가 아니라 로동자들이다. 한 달 빼빠지게 일하고도 국수 한 그릇 값만큼한 월급마저 6~10 개월씩 받지 못하니 체불 로임을 내라고 소리 지르며 투쟁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도처에서 보는 광경이다.

판자집까지 강제 철거 당하여 이 추운 겨울에 굶주리며 떠는 그들의 가족들——이것이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까마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어느 날 신문이고 자살 사건이 보도 안되는 날이 없다.

저기 대낮 같이 밝은 곳은 틀림 없는 미군 구역이다. 놈들은 전기도 독점하고 시민들에게는 〈제한 송전〉〈교대 송전〉한다. 수수떡 같이 약간 불그레하게 껌벅껌벅하는

전등도 10 시 이후엔 아주 암흑 세상이다. 세계 어느 데 도시에 이런 암흑 천지, 이런 초'불 켜는 데가 있는가

고리대금업자들의 분주한 걸음을 보라! 서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 농민은 전후 6년 간에 1천 800억 환의 빚을 걸머지고 허덕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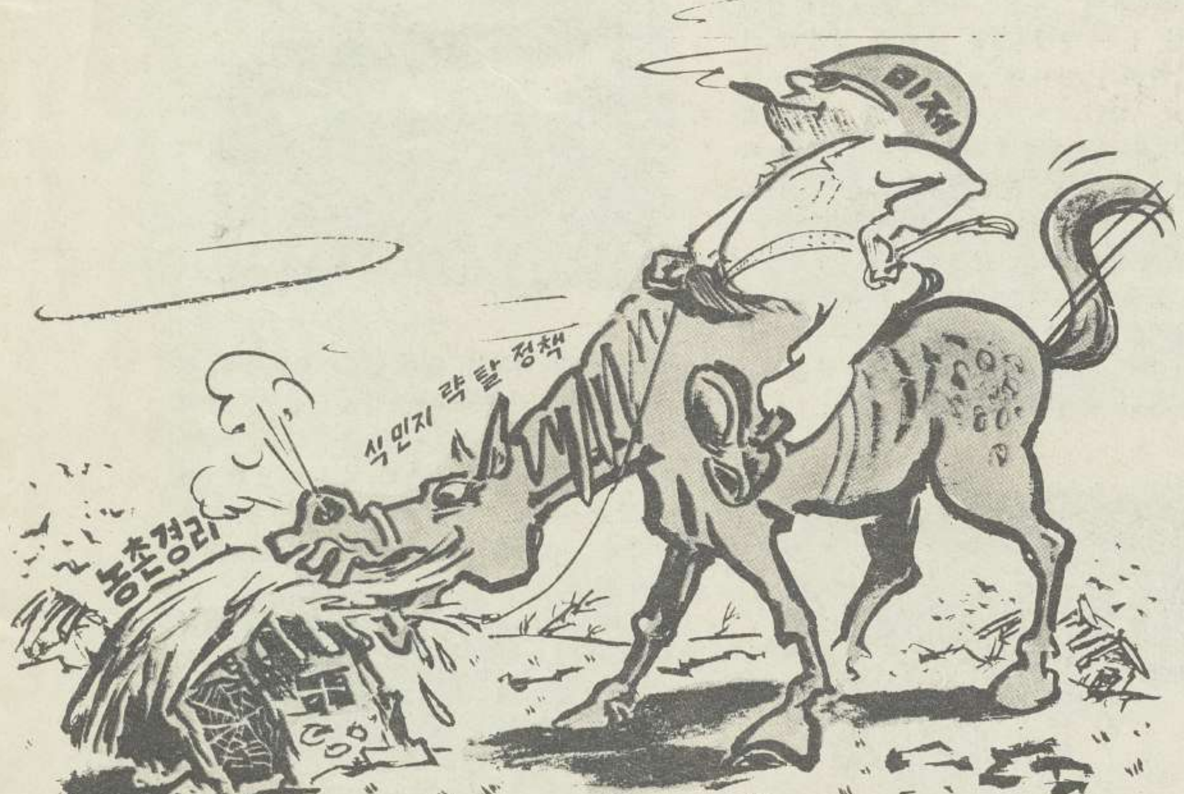
범죄의 소굴, 교통 사고의 왕국을 떠나 지방에 가 보면 더 비참한 광경이 있다. 100만 호의 리재민, 수 백만 호의 절량 농민들의 형편은 서울 형편에 댈 수도 없이 더 비참하다.

나는 당신을 더는 괴롭히지 않으련다. 이만큼 견학하면 생지옥 견학도 진저리 나실테니—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가 실현된다면

송 용남 그림

모조리 걸어 먹는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가혹한 략탈로 말미암아 남조선 농업은 극도로 황폐화되였다. 지난 날 곡창 지대였던 남조선은 이미 만성적인 기근 지대로 변한지 오래다.

백 인균 그림

남조선 류행어 사전

신 홍순

△ 몽둥이 민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반동 통치 제도는 오직 폭압으로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괴뢰 정부는 매사를 총칼로써 해결하려 든다.

강제 징병에도 몽둥이요, 세금을 긁어 들이는 데도 몽둥이, 량곡을 수탈하는 데도 몽둥이, 선거에도 몽둥이, 괴뢰 국회에서도 몽둥이— 어쨌든 위협과 공갈, 강압과 폭력, 걸핏하면 검거 투옥이요, 찍하면 엄벌 극형이다.

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서 사흘이 멀다 하고 방공 훈련이요, 상륙 작전 련습이요, 원자 전쟁 훈련이요, 미군과의 련합 작전 훈련이요 하고 날마나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여념이 없다.

거리마다 골목마다에는 몽둥이를 든 경찰과 테로 헌병 엠피가 개 떼 쏘다니듯 하고 있고 호각 소리, 군용견 짖어 대는 소리, 싸이렌 소리, 총소리— 이것이 오늘 남조선 사회의 현상이다.

그래서 〈몽둥이 정치〉, 〈몽둥이 국회〉, 〈몽둥이 민국〉이라고 한다.

△ 4천 년래의 민생고

조선 력사가 생긴 이래 오늘처럼 남조선 인민들이 고통과 불행 속에서 신음하는 시대는 일찌기 없다는 통탄의 말이다.

660만의 실업자가 일'자리가 없어 거리에서 헤매고 수 백만의 절량 농민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거리에는 상이 군인, 류랑 고아, 걸식자가 방황하고 있다.

수입은 없는데다가 물'가는 고무 풍선 모양으로 대구 올라만 가니 어린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아 나갈 도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독약을 마시고, 강물에 몸을 던지고, 달려오는 기차 앞으로 뛰여 들고, 제 손으로 제 목을 매는 자살자 수효만 늘어 간다.

그래서 〈8백 년래의 물'가고〉, 〈4천 년래의 민생고〉란 말이 나왔다.

△ 가짜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지배하는 남조선인지라 가짜가 많기로 세계 제일이다. 가짜 옷'감에 가짜 화장품, 가짜 물'감에 가짜 약품 할 것 없이 어찌나 가짜 상품이 많던지 참기름 파는 집에서는 〈진짜 참기름 팝니다〉라고 써 붙여야 하는 형편이다.

상품만이 아니라 가짜 차표에 가짜 극장표, 가짜 증명서, 가짜 돈이 있는가 하면 사람까지도 가짜 천지이다.

가짜 형사, 가짜 헌병, 가짜 세무원, 심지어는 한때 지방 관리들을 녹여 낸 가짜 리 승만의 양자까지 횡행하는 판이다.

그래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다. 《한국에서 진짜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해와 달 그리고 뇌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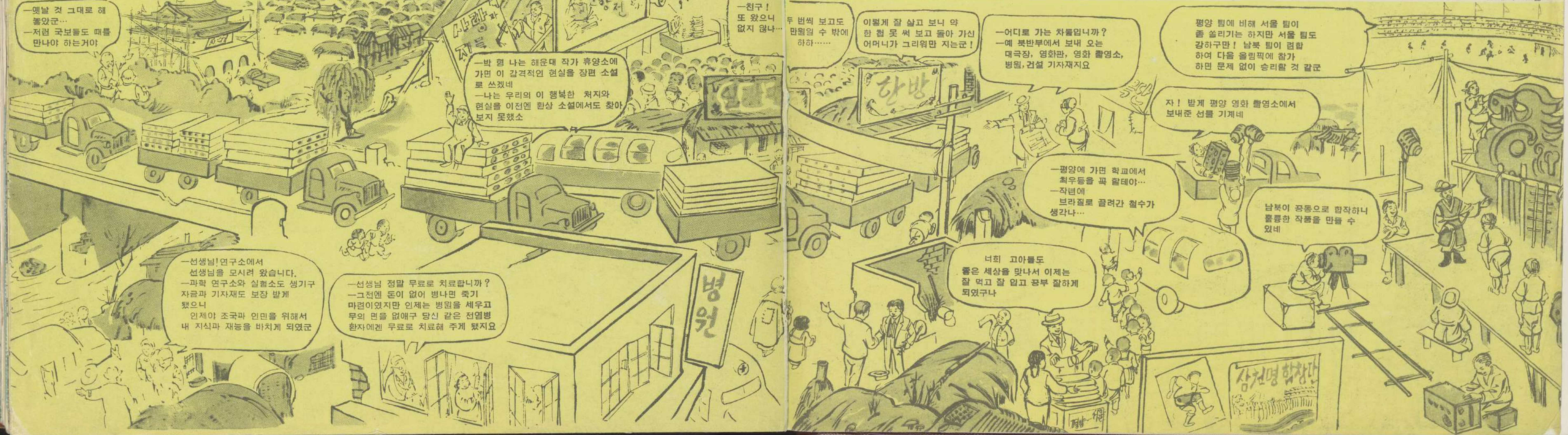
남조선 고기떼

원 광수 그림

남조선의 중요한 어항들은 미제의 군항으로 변하고 이름난 어항들은 해군 훈련장으로 되였다. 왜제 때에 비한다 하여도 어선 톤 수는 4분의 1이나 감소되고 어획고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어업 인구 1인당 어획고는 북조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가 실현된다면

허 능택 그림



장면 매대

조 명식 그림

두더지의 운명

유 진용

《대한 민국 상공부》에서 내려온 출장원은 가마니 문짝들이 데룽거리고 바락크가 쭉 늘어선 탄광 마을을 휘 쏘아 보고 맞은편 야산 마루에 우뚝 솟은 사장댁을 찾아 갔다.

《여보, 사장 두더지 왕이란 말이 떠도는데 그게 도대체 누굴 두고 허는 소리요?》 출장원은 사장더러 첫 마디를 이렇게 떼였다.

《허허… 어디서 벌써 들으셨군!》 사장은 너털 웃음을 웃어가며 말을 잇는다.

《그게 바루 그 망할 이 광산 놈들이 날 두고 지꺼리는 험구지랍니다》

《거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글쎄 요즘에 점점 더 기승을 부리거든요.》

《거 다 까닭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요?》

《까닭이라?》

《좌우간 이번 북조선에서 보낸 편지와 의견서라는 걸 로동자 녀석들이 아는가 말요?》

《글쎄요 그걸알면 저의 비밀두 비밀이거니와 원대한 계획까지 파탄됩니다》

《어떤 계획 말입니까?》

《우선 두더지 촌을 강화하는 문제지요.》

《어떤 방법으루요?》

《말하자면 우리 대한 민국에서 고창하는 초긴축 정책이죠. 사실 제가 부임한 이후 넉달 동안 한 번도 월급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요. 요는 매를 다루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매라니요?》

《매란 놈이야 워낙 굶어야 꿩을 잘 잡질 않습니까! 우선 로동자들을 굶기는 게 상수지요. 그리구 로동 시간두 18 시간으루 연장해서 이 놈들을 움직 못하게 갱내에 가둬 둘 작정입니다》

《그러니 정말 두더지군요》

《그런데 자연 조건이 좀 불리해서 걱정입니다》

《어째서요?》

《워낙 산으로 둘러 싸이고 보니 암만 식량을 안 주고 잘라매두 굶는 법이 없거든요. 그저 도라지요 뭐요 하면서 그냥 산채로 배겨 내거든요 (산쪽을 가리키며) 저것 보십시오. 온 가족이 눈을 헤치면서 한사코 땅을 파 내구 있지 않소》

《그러다 보니 가족들마저 두더지가 되구 말았군》

《아 원, 례외가 있을라구요!》

《거 정말 뛰는 놈 우에 나는 놈 있다더니 방법이 아주 능하외다》

《그저 저의 시책을 인정만 해 주신다면 모가지가 열두 동강이가 나도 해낼 작정입니다》

× × ×

바로 이때 앵… 앵… 싸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게 웬 일이야?!》 사장은 불시에 몸이 움추려 들었다.

《아니 왜 그리 놀래십니까?》

《왜라니요!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내 승인이 없이는 때 아닌 싸이렌이 나는 법이 없는데… 우리 잠간 자리를 피합시다》

《어디루요?》

《저 지하실루요 어서… 놈들이 습격할지두 모릅니다》

《글쎄 념려 말래두요, 제가 감당하지요! 아마 제 말이면 그들도 순순히 들을 겁니다.》

《순순히가 뭐요.》

사장은 슬슬 피할 차비를 한다.

《글세 앉으십시오》 출장원은 짐짓 사장을 붙어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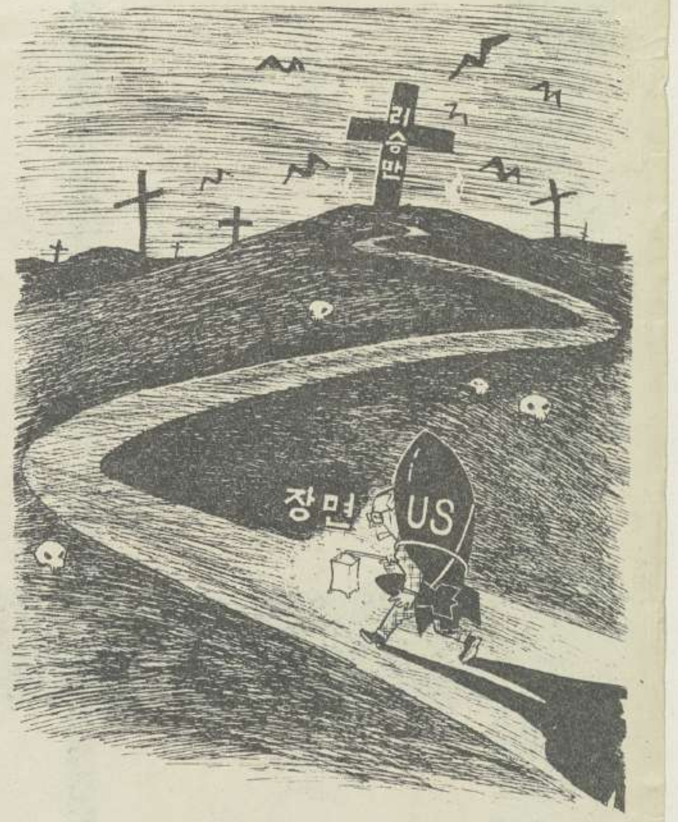
× × ×

이러는 판에 문 밖에는 로동자들이 우루루 몰려 들었다.

《여러분 바로 저 놈이 미국놈의 등에 업혀서 우리 광부들의 피땀을 빨아 먹고 있습니다.》

그는 숨을 돌려가면서 오른팔을 쳐들고 이렇게 웨쳤다. 잠시 후에 사장놈과 출장원은 두더지 굴에 끌리워 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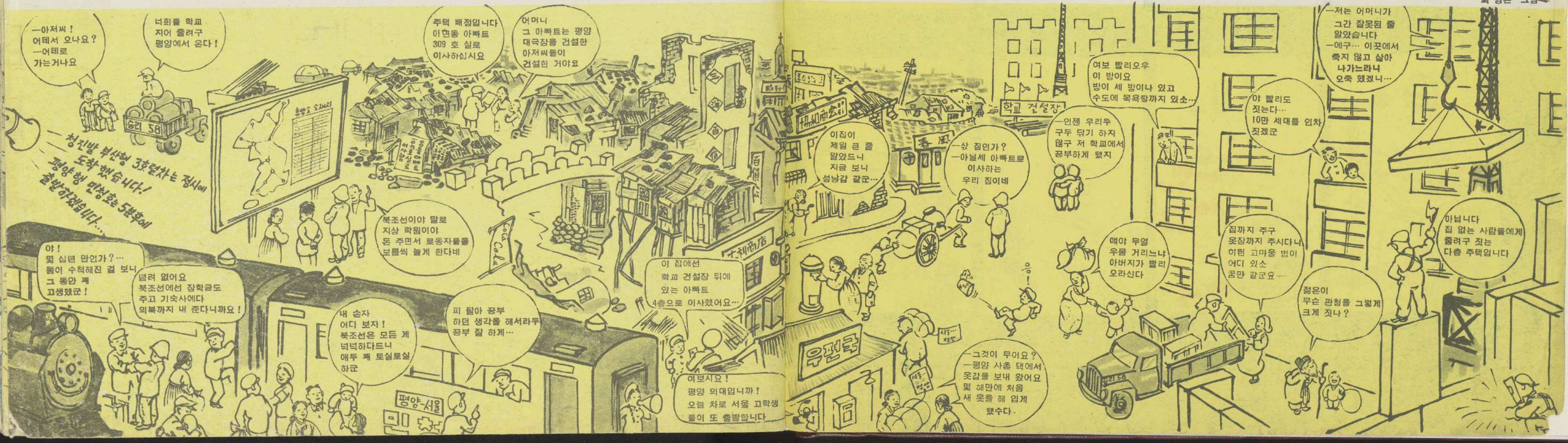
신 괴뢰 정부의 길



청진시 김책 제철소 최 성술 그림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가 실현된다면

최 영근 그림



제국주의자의 열두달 총화

1월

추저 앉은 《우세》

2월

《친선》의 《꽃보라》

3월

규탄 받는 《안보 조약》

4월

무너진 리 승만

5월

실패한 도적질

6월

취구멍 신세와
쓰레기 신세

7월

콩고에서의 베루기와
알제리아에서의 수탉

8월

우주 시대의 식민주의자

9월

달콤한 나라에서
쓴 맛을 보고

10월

진퇴 량난된 미국 대표

11월

불길한 인계

12월

새해의 예고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그— 16209
발행 1960.12.20
(값 40 전)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52 3